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8면	경포대초교 신축 협약	1
강원도민일보	11면	경포대초교 신축 이전 동계올림픽특구 속도	2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2
강원도민일보	06면	의료기기 기업 2곳 원주 제조공장 신·증설	3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3
江原日報	27면	소중한 추억 쌓으며 화합하는 농아인 가족	4
江原日報	16면	"주민참여제 활성화·주민 평가 감시 주체 거듭"	5
江原日報	19면	고성군 상1리 경로당 준공식	5
강원네트워		태백시, 2023년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거행	6
江原日報		[포토뉴스] 횡성 목우회 8월 정례회	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이상호(왼쪽) 태백시장·문관현(태백)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원미희(비례)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김용복(고성·왼쪽)·이지영(비례)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기영(위 왼쪽) 시의장·박호균(위 오른쪽)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왼쪽)·김시성(속초) 도의원	9
江原日報	27면	[동정] 박기영 강원도의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	9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원제용 도의원	9
江原日報	27면	[동정] 정재웅 강원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장(춘천)	9
江原日報	07면	강원 관광업체 사상 첫 2,000개 돌파	10
江原日報	05면	"추석 대목 내다 팔 과일 없어요" 농민들 시름	10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건설수주액 1조원 감소, 업계 위기감 고조	11
강원도민일보	05면	도교육청 학교별 동상·인물벽화 조사 "21세기 검열이냐"	11
江原日報	02면	24년간 의석 5석 감소 ... 누더기 선거구 반복	12
江原日報	02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거론 강원 정치권 촉각	12
江原日報	20면	태백서 이달에만 11개 스포츠대회 개최	13
강원도민일보	02면	춘천 서면대교 내년 국비 20억원 확보...2028년 준공 전망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추석명절 관광특수 극대화 해야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시민안전 파출소 정원도 못 채워서야	15
江原日報	25면	[사설] 도내 대학 뼈 깎는 구조조정 안 하면 도태된다	16
江原日報	25면	[사설] 道 출생아 수 7천명 붕괴 위기, 지역 존립 대책은	17

江原日報

2023 09 01 ()
18

◇‘경포대초교 신축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31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홍규 강릉시장, 정범식 (주)비엔티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포대초교 신축 협약

【강릉】‘경포대초교 신축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31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강릉시, 강원자치도교육청, (주)비엔티파트너스 간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 정범식 (주)비엔티파트너스 대표 등과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장, 심오섭·박호균·김용래 도의원, 허병관·김문섭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익기기자 igjung@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11

경포대초교 신축 이전 동계올림픽특구 속도

강릉시·도교육청 등 업무협약
자연친화적 신축 내년 3월 착공
라군타운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

강릉 경포대초교 신축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31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신경호 도교육감, 권혁열 도의장, 정범식 비엔티파트너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비엔티파트너스는 31일 강릉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신경호 도교육감, 권혁열 도의장, 정범식 비엔티파트너스 대표이사, 정태범 강릉교육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포대초교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경포대초교 신축이전은 민간개발사업자인 비엔티파트너스가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지역에 관광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라



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이제 이번 라군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학교와 30m가량 떨어진 인근저동 4-1번지 일대로 옮겨지게 됐다.

학교 이전은 학부모대상 설문조사와 동문회와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 교육환경 평가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교 신축은 사업비 50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3월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학교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올림픽 특구지역의 개발사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라군타운을 조성하는 비엔티파트너스는 올해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경포대초 일대 부지를 포함한 안현동 일대에 지하1층, 지상 34층, 객실 887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홍규 시장과 신경호 도교육감은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신축되길 바란다"며 "라군타운도 지역 관광지의 핵심인 경포일대에 조성되는 만큼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범식 비엔티파트너스 대표이사는 "학교를 자연친화적으로 신축,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11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학진)가 주관하는 제14회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31일 강릉아트센터에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시장, 김기영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3 09 01 ()
06

강원도민일보

의료기기 기업 2곳 원주 제조공장 신·증설

오톨-현대메디텍-도-원주시 협약
행·재정 지원·투자확대 적극 협조
교통 인프라 등 기업 최적지 홍보

원주에 엑스레이·바이오헬스케어 생산기업 2곳이 공장을 신·증설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31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초저선량 엑스레이 생산기업 오톨(대표 오준호), 바이오 헬스 제조기업 현대메디텍(대표 송미희)과 원주 공장 신·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도와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공적 사업추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체들은 제조시설,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 확대 노력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원주를 의료산업 분야 최적의 기반을 보유하고 수도권과의 가까운 접근성, 편리한 교통인프라 등의 매력을 가진 '기업하기 최적의 도시'임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오톨, (주)현대메디텍 원주공장 신·증설 투자협약식
2023. 8. 31.(목) 10:30 / 도청 본관 소회의실
강원특별자치도 O'TOM HYUNDAE MEDITECH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은 31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이동용 초저선량 엑스레이 생산기업 오톨(대표 오준호), 바이오 헬스 제조기업 현대메디텍(대표 송미희)과 원주 공장 신·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서영

이번 협약 대상 기업인 오톨은 산업용 엑스레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AI엑스레이 분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오톨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이동용 CT촬영기기 연구개발에 따른 제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공장 신·증설을 결정했다. 오톨은 60억원을 투자해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1567㎡ 규모의 공장을 신·증설해 2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현대메

디텍은 원주기업도시에서 기존 공장 옆 부지에 148억원을 들여 제조공장을 증설한다.

현대메디텍은 봉합사, 자동약물주입기, 필터 등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피부미용에 대한 특허와 기술(GMP&ISO)이 반영된 제품을 개발해 미국, 호주, 브라질, 유럽 등 수출물량이 늘어나 제조공장을 증설하게 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오톨과 현대메

디텍의 공장 신·증설 투자는 원주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확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두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원주의 주력 산업이 기도한 의료기기 분야가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김덕형

江原日報

2023 09 01 ()
02

도의회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함영이 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유순옥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임명 후보자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



참이다. 이어 14일 오전 11시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함 후보자는 강릉 출신으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자유선진당 여성국장, 선진통일당 홍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정기자

소중한 추억 쌓으며 화합하는 농아인 가족

도 농아인가족캠프 개막
오늘까지 프로그램 다채

“농아인 가족들의 화합과 농인과 청인 간의 이해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듭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가족캠프가 지난 31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1일까지 진행된다. 한국농아인협회 강원자치도 협회가 주최하고 횡성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농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은 정원영 횡성군지회장의 개영선언과 함



◇2023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가족캠프가 지난 31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께 환영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을 열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1일에는 폐영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참가자들은 청태산자연휴양림, 횡성숲체원, 국순당 등을 방문해 횡성의 자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 양봉원 꿀뜨기, 한우버거 만들기 등을 통해 행복한 추억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용 도농아인협회장은 “아름다운 자연이 숨 쉬는 곳, 횡성군에서 사랑하는 농아인 가족 여러분을 만나 매우 기쁘다”며 “농인과 청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농아인 가족 모두가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자리를 통

해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나누며 더욱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는 김영숙 횡성군의장,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김남준 도장애인복지과장, 이정식 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임조성 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농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주민참여제 활성화·주민 평가 감시 주체 거듭”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 기조강연서 강조

효율적인 지방 행정 구현을 위해 감시 기능인 주민참여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정책의 발안, 결정, 평가, 감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31일 열린 2023 춘천시 주민자치포럼 기조강연에서 ‘지방시대 지방자치분권의 주인:주민’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권한을 배분받는 중앙집권적 특성을 거쳐 현 단계까지 발전해왔고 마지막 터널은 주민자치 구현”이라며 “과거부터 주민은 자치를 실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시선이 있지만 주민의 자치 의식, 갈등 관

리 역량을 강화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가 좌장을 맡았고 경창현 시 자치행정과장,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교선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장, 신영길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장, 문상석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기조강연에 앞서 춘천시의와 춘천시의회,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 강원일보는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김진호 시의장은 “주민 자치 조직이 대표성을 갖고 자부심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여건 조성에 힘쓰



◇2023년 춘천시 주민자치포럼이 지난 31일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춘천 주민자치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겠다”고 말했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는 “주민자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뿌리로 주민 의식을 갖고 춘천의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

스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은 김진호 시의장, 성길용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신영길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 한기호·노용호 국회의원, 박찬홍 도의원,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 김용갑·박노일·김지숙·박남수·이선영·권희영·나유경·윤민섭 시의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춘천=정윤호기자 jyh89@



고성군 상1리 경로당 준공식 고성군 상1리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 31일 오전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최용현 상1리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8 31 ()

태백시, 2023년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거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산업전사위령탑에서 순직산업전사위령제를 거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이철규 지역구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양정식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장, 박창규 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장, 강원도의회 의원, 태백시의회 의원 및 기관·사회단체장, 광산업체 관계자, 유가족 등이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순직산업 전사를 기리는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이바지한 4,188명의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며,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시영 기자

江原日報

2023 08 31 ()

[포토뉴스] 횡성 목우회 8월 정례회



횡성 지역 기관·단체·기업체·대학·학교 대표자 모임인 목우회 8월 정례회가 지난 31일 횡성군 대회의실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한창수 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동권 횡성경찰서장, 백경화 국토정보공사 횡성군지회장, 이경중 송호대 총장, 김찬호 소방안전원 강원지부장 등 신임 회원 소개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유했다.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춘천).원미희(비례) 도의원은 1일 오후 2시 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열리는 여성.가족.복지 정책 포럼에 참석.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이지영(비례) 도의원은 2일 오후 5시 고성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금강산봉사회 창립30주년 기념식에 참석.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1일 오후 3시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61회 강원예술제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1일 오후 4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리는 제68주년 강릉시민의 날 경축기념식에 참석.

엄윤순(인제)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30분 인제군 상남면 상남2리 마의태자 권역에서 열리는 제14회 상남마의태자문화제에 참석.

김시성(속초).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일 오전 11시 속초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2023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

원제용(원주).전찬성(원주) 도의원은 1일 오전 9시 원주 치악테니스 코트에서 열리는 제17회 원주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에 참석.

문관현(태백) 도의원은 2일 오전 10시 태백 산업전사위령탑 경내에서 열리는 2023년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에 참석.

최규만(횡성) 도의원은 1일 오후 2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17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12

이상호(왼쪽) 태백시장·문관현(태백) 도의원은 2일 오전 10시 산업전사위령탑에서 열리는 순직산업전사 위령제에 참석한다.

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열리는 여성·가족·복지 정책 포럼에 참석한다.



원미희(비례) 도의원은 1일 오후 2시 강원특별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17

김용복(고성·왼쪽)·이지영(비례) 도의원은 2일 오후 5시 고성 거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적십자사 봉사회 특자도지사금강산봉사회창립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11

센터에서 열리는 제 68주년 강릉시민의날 경축기념식에 참석한다.



김기영(위 왼쪽)시의장·박호균(위 오른쪽) 도의원

원·심오섭 도의원은 1일 오후 4시 강릉아트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17

강정호(왼쪽)·김시성(속초) 도의원은 1일 오전 11시 속초 노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2023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한다.

2023 09 01 ()
10

원제웅 도의원은 1일 오후 6시 강원감영내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강원 감영 달빛여행 개막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江原日報

2023 09 01 ()
27

◇박기영강원도의회안전건설위원장(춘천)



은 1일 오후 3시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61회 강원예술제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9 01 ()
27

◇정재웅강원도의회사회문화위원장(춘천)



은 1일 오후 2시 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열리는 여성·가족·복지 정책 포럼에 참석.

2023 09 01 ()
07

江原日報

강원 관광업체 사상 첫 2,000개 돌파

상반기 도내 사업체 2,181개
코로나·경기 침체에도 활황
호스텔업은 6배 이상 폭증

올해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사업체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업만큼은 활황을 누렸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 관광사업체는 2,18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953개)보다 228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1,580개)와 비교해 601개 늘었다. 도내 관광사업체가 2,000개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호텔업 사업체가 217개로 2019년(147개)보다 70개 증가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 등이 포함된 호스텔업 사업체는 11개에서 68개로 6배 이상 폭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때요른 '캠핑붐'과 함께 야영장 수도 크게 확대됐다. 2019년 상반기 476개였던 도내 야영장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694개로 218개 늘었다. 이 기간 전국

에 새롭게 문을 연 야영장이 모두 1,200개임을 감안하면, 신규 야영장 5곳 중 1곳(18.2%)은 도내에 들어선 셈이다.

관광식당, 관광순환버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련 사업체 역시 2019년 157개에서 올해 230개로 73개 추가됐다. 여행사는 592개에서 18개가 늘어 610개가 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여행사 2,099개가 문을 닫은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는 코로나19 기간 해외여행이 막히며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강원도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근거리, 저비용 여행 수요가 높아진 점이 강원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외부 방문자는 1억 5,352만명으로 2019년(1억4,561만명)보다 5.4% 많았다.

석기동 강원도관광협회장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산과 바다를 낀 자연경관, 다양한 먹거리 등이 강원도 관광의 강점으로 작용했다"며 "높아진 관심을 이어가기 위한 관광업체들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2023 09 01 ()
05

江原日報

“추석 대목 내다 팔 과일 없어요” 농민들 시름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과일 값이 경중 뛰고 있지만 강원지역 과수농가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도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집중되면서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고 그나마도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정선군 임계면에서 7,000㎡ 규모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홍태(58·송계리)씨는 올봄 냉해로 착과량이 평년의 절반에 그쳤다. 김씨는

냉해 이어 우박 직격탄

도내 농가 생산량 반토막

품질도 떨어져 ‘한숨’

도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

“제수용으로 인기가 높은 홍로가 20%밖에 열리지 않고 팔 수 있는게 거의 없어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4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냉해 피해는 477.7ha(축구장 669개 면적)로, 이 중 85.5%(408.3ha)는 사과·복숭아·배 등 과수에 집중됐다. 냉해가 지나간 뒤 6월에는 도 곳곳에 지름 1.2cm의 우박이 쏟아지며 422.9ha(축구장 592개 면적)의 농경지가 쑥 대밭이 됐다.

더욱이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달려 있는 과실마저 모두 땅이 들고 흙집이 나 정상과를 단 한 상자도

팔 수 없는 지경이다.

6월 쏟아진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화천군 상서면 나창북(54·다목2리)씨는 “상처가 작은 흙집과는 정상과의 절반 가격이라도 받는데, 그마저도 얼마 없어 과실이 아닌 사과즙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숨 지었다.

지난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나씨의 농가에서 재배 중인 부사(특상품, 10kg)의 평균 도매가는 5만3,

000원이다. 하지만 나씨가 증용으로 판매하는 흙집과는 10kg에 1만원에 불과했다.

도 농정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박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한 데 이어 추석 전 냉해 피해 농가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약대와 대파대 등 12억6,6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농가들의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오미기자 omme@kwnews.co.kr

2023 09 01 ()

01

강원도민일보

강원 건설수주액 1조원 감소, 업계 위기감 고조

1~7월 전년보다 25.4% 줄어

아파트 미분양 증가율 전국 1위

시장침체 장기화 조짐 업계 고심

올해 강원지역 건설수주액이 전년 대비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증가율도 7월 들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강원통계지청의 '2023년 7월 강원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건설수주액은 1513억원으로 전년동월(8191억원) 대비 6678억원(81.5%) 대폭 감소했다. 공공부분의 경우 철도·도로, 항만·공항 등의 수주 증가로 86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7월(304억원)과 비교해 561억원(184.9%) 증가했으나 민간부분의 하락세가 컸다. 민간부분은 신규주택, 숙박시설 등 수주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7월 7887억원에 서울해 648억원으로 7239억원(91.8%)이나 감소했다.

강원지역 건설수주감소는 올해 들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1~7월) 건설수주 누계액은 2조 9057억원으로 전년동기(3조 8933억원)보다 9875억

올해 도내 공공·민간 건설수주액
출처/국토교통부, 단위/억원, % (전년대비)

	공공 건설 수주액	증감률	민간 건설 수주액	증감률
1월	233	-39.1	2503	-49.6
2월	370	61.8	587	-68.5
3월	562	-22.8	3133	-35.5
4월	453	-41.8	779	25.7
5월	8508	654.0	507	-94.5
6월	1977	433.0	7663	38.9
7월	865	184.9	648	-91.8

원(25.4%) 줄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 기준 지난 6월(63.9%)을 제외하고 1월 -48.8%, 2월 -54.3%, 3월 -29.2%, 4월 -11.9%, 5월 -13.6%에 이어 7월까지 잇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공공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수주가 3배 이상(230.8%) 늘면서 지역 건설경기 회복시키려고 했으나 민간부분 시장 침체가 장기화돼 강원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미분양 주택은 3324호로 전월(2461호) 대비 863호(35.1%)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 3087호)은 6월보다 3301호(5%) 감소한 것과 달리 강원지역은 미분양 증가율이 전국 1위로 적체가 심화되고 있

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404호, 20.7%), 광주(55호, 8.6%), 충남(43호, 0.6%)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임금 상승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고분양가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미분양 주택 해소가 장기화

될 경우 분양시장도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025년 6월까지 강원지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2만 1228호로 예정됐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관계자는 "올해 초보다는 상황이 나아졌

기는 하나 건설 시장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분양 해소가 장기화되면 건설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건설,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2023 09 01 ()

05

강원도민일보

도교육청 학교별 동상·인물벽화 조사 "21세기 검열이냐"

홍범도 장군 흉상 이념공방 속

불필요한 행정낭비 반발 지속

이태규 의원 자료요구 철회

"설립기준 확인·비교 차원"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광주광역시 정을성 작곡가 역사공원 조성 등을 두고 정치권의 이념 공방이 과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회의원실 요구라는 이유로 각 학교에 설치된 동상과 인물벽화 등을 조사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학교 현장에 시행에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이념공방을 학교로 끌고 온다"며 반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의원실은 자료요구를 철회했다.

31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 3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각 학교에 '〔긴급〕 학교별 동상 및 인물벽화 등 설치 현황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국회 이태규 의원실의 요구자료(학교별 동상 및 인물벽화 설치 현황)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공문이 시행되자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강원

도내 A교 교장은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등으로 이념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논란을 학교로까지 끌고오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고, B교장은 "불필요한 행정낭비라 비판했다. '21세기 검열도 아니고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한 교장도 있었다.

이번 자료요구에 대해 이태규 의원실은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본지 기자에게 "학교 동상 설립 기준 등을 확인해 맞는 지 비교하려는 것"이라며 "각 학교에 구체적 기준 없이 무작정 동상이 세워졌거나 기준에 어긋난 부분을 살펴 보기 위함이다. 기준에 맞지 않게 설립된 경우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이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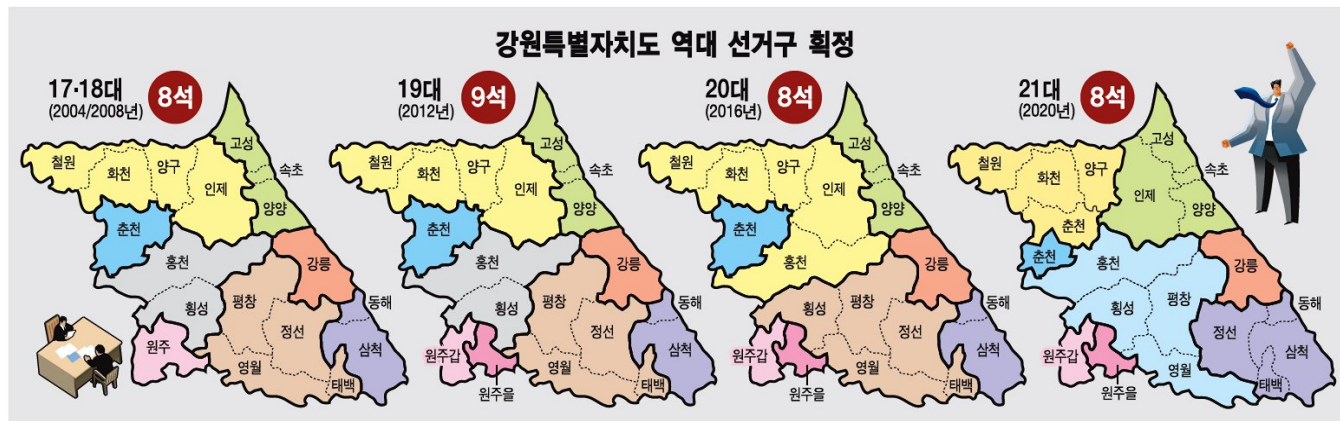
그러나 현장의 논란이 계속되자 31일 오후 이태규 의원실은 자료요구 철회의사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 등의 연락이 왔다"며 "각 학교 개학 시즌이기도 해 학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자료요구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교육청에 자료가 없다 보니 학교 현장까지 공문 시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정민엽

2023 09 01 ()

02

江原日報

24년간 의석 5석 감소 ... 누더기 선거구 반복



/ 기획 - 미리 보는 강원 2024 총선 /

(2) 선거제 개편이 관건

국회가 올 초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돌입했으나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식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1년 전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선거일 1~2개월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이 겨우 이뤄졌다. 특히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는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기에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 24년간 선거구 재획정 반복 =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확정 방식으로 강원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에서부터 24년 동안 다섯 번 변했다. 특히 15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인구수 기준 현행제도 부작용
기형적 선거구 재획정 절실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었던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불여지며 '대의 정치' 의미가 사라졌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의석수 감소 및 누더기 선거구가 되풀이되는 이유다.

지난 21대 선거에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했다. 춘천시는 단독 분구의 요건을 갖췄지만 접경지역

인구가 모자라 춘천 북부지역의 일부(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를 때 철원, 화천, 양구에 붙인 새로운 선거구 '춘천-철원-화천-양구'를 만들었다. 선거구 재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 국회 공회전 반복만 =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도 벌였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를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도 이뤘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양수·송기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김상훈·김영배) 등 4명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 의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매듭짓자고 당부했으나 이번에도 선거제 개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 의석수 1석 확보 관건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이다. 지난 선거에 도입했으나 위성정당 출현으로 연동 효과가 사라졌다.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은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20대 이전의 '소선거구제+병립형'을,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강원권에서는 의석수가 1석이 더 늘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춘천의 단독 갑·을 분구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은 면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특별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

江原日報

권역별 비례대표제 거론 강원 정치권 촉각

2023 09 01 ()

02

여야 3~6개 권역별 도입 공감
도내 의원 의석 확대·축소 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향후 강원 국회의원의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정 논의 중인 여야는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개혁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 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눌지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북부(서울, 경기, 인천)·중부(강원, 충청, 대구·경북)·남부(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 등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총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지난 총선까지 적용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앞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중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몇 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특히 의석수가 축소될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충청, 대구, 경북'과 함께 권역에 포함되거나 '충청'과 묶이는 등의 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후 같은 권역의 타 지역과 경

쟁을 하게 되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 몫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오히려 의석수가 확대되거나 지역 출신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권역을 3개로 할지 5-6개로 할지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강원 출신 인사들이 도가 포함된 권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기자

2023 09 01 ()

江原日報

20

태백시 이달에만 11개 스포츠대회 개최

본보 주최 리틀야구 주목
시 “경제 활성화 준비 만전”

【태백】태백시는 이달 강원일보사 주최 태백산배 전국리틀야구대회, 태백시장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등 11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2일에는 국회의원배 4개 시·군 왕중왕전 축구대회가 종합경기장 외 고원구장에서 열린다. 같은 날 태백시협회장배 과크골프대회도 개회식을 갖는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가 고원체육관에서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7일부터 12일까지 종합경기장, 고원4구장에서는 아시아대학축구대회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태백시장배 전국유소년축구

대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고원 1, 2, 3구장에서 1,000여명의 유소년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또 9, 10일 양일간 제3회 태백시의장기 게이트볼대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태백시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가 개최된다.

13일부터 22일까지 태백산배 전국리틀야구대회가 42개 팀 1,500여명의 선수와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16, 17일에는 강원학생태권도대회가 열리고 22, 23일에는 강원도지사기 드론스포츠대회가 진행된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태백시장기 볼링대회가 태백볼링장에서 펼쳐진다.

정운섭 시 스포츠과장은 “더 많은 선수가 방문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2023 09 01 ()

02

강원도민일보

춘천 서면대교 내년 국비 20억원 확보...2028년 준공 전망

행안부 예산 600억원 반영 결정
중도동~서면 금산리 1.2km 연결
외곽지역 교통망 확충 속도 기대

속보=춘천 서면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확정 (본지 8월30일자 웹보도)되면서 춘천 외곽지역 교통망 확충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국비 2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되면 2028년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3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서면대교 건설예산을 총 1200억원으로 산출하고 이 중 절반인 50%를 국비로 지원

춘천 서면대교 위치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추방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에 춘천 서면대교 건설예산 600억원이 반영됐다. 나머지 600억원은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서

면대교는 올해 설계비 예산 10억원이 반영, 국비 확보의 물꼬를 튼 상태다.

중도동에서 서면 금산리 일원을 연결하는 서면대교는 1.2km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연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공사는 설계와 시공 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 춘천시는 2028년 12월에는 서면대교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돼 온 서면대교는 민선 8기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육동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차례 찾아 서면대교 건설 필요성을 역설, 지난해 연말 설계

비 10억원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이후 이번엔 국비 600억원 투입도 확정되면 서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도심지역과 서면을 연결하는 다리는 신사우동에 위치한 신매대교가 유일하다. 때문에 교통량 분산 효과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면대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면대교 국비 확보를 계기로 외곽 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와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18.10km)는 외곽 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퍼즐이다. 춘천시는 이 구간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2026년~

2030년)에 반영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보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덕두원-현암 6.5km 도로 개선에 착수했다. 지역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소양8교 건립의 경우 점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행안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SNS를 통해 “기적처럼 서면대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 것에 이어 국가가 예산을 분담하기로 해 서면대교의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며 “정부시절 춘천대교 건립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서면대교도 멋지게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 19

추석명절 관광특수 극대화 해야

-10월2일 공휴일 지정6일 연휴, 흥행 기대

윤석열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평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명절 관광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돼 한여름 못지않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등 도내 관광지는 울려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피서 특수를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해 만회해야 한다며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상가와 지자체는 명절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일이 휴일로 지정되면 소비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연휴 교통량 분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일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습니다. 공휴일 지정이 확실시되자 도내 관광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내 리조트와 호텔은 예약으로만 실행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숙박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1700여명에 달합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양과 삼척 등 4곳의 대표적인 리조트·호텔 예약률이 100%에 달하고, 특히 추석당일에 취소할 객실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숙박 예약 상황은 연휴 경기의 지표로 활용돼, 이를 토대로 한 경기 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숙박 경기를 지역 경기로 연계시키는 일이 관건입니다.

도내 시군은 명절 연휴 관광에 대비해 지역 상가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 열리는 지역 축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여행객들이 행사장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지 방문객들의 발길을 관광지에서 시내 상권으로 유인할 콘텐츠를 만들고, 특산물 장터 등을 운영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등 지역 상가에 별도의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처럼의 명절특수를 단풍 특수로 이어가게 해, ‘4계절 강원 관광’의 물꼬를 트길 기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01 ()
/ 19

시민안전 파출소 정원도 못 채워서야

-전국 파장 범죄 흉흉해 경찰 일선 전진 배치 조정 필요

일반 시민 피부에 가장 와닿는 동네지 구대와 파출소 경찰 인력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채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온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흉흉한 상황 이어서 치안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와 춘천, 강릉 빅3 지역에서도 정원 부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3개 도시에서 일어난 주요 5대 범죄 발생건수가 21년 기준 6707건으로 강원 전체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치안 수요가 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선 치안 수요와 밀접한 지역 경찰이 제 몫을 하려면 충분한 인력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부터 전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 경찰 정원을 충족한 곳은 동해·태백·속초·삼척·철원 5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본청과 본서에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동대로 인원이 우선 배치되면서 일선은 뒤로 밀려나면서 정원 미달 사태를 가중하는 것으로 여겨 집니다.

더군다나 강원 경찰청 조직 내부에 인력 편중 현상까지 심해서 일선 지역 경찰 부족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본서 근무 인력은 결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 4670명 가운데 초과 인원이 5명에 불과하긴 하지만, 일선 지역 경찰은 1915명 중 64명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또한 주로 내근하고 있는 본청·본서 및 현장 출동을 위주로 하는 지구대·파출소간의 불균형한 정원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 지적도 나옵니다. 4670명 대 1915명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원 전체 경찰의 인적 자원은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치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악한 범죄 발생 건수 등을 비롯해 행정동 단위에서 수집된 관찰지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담당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거나 관습화된 점은 무엇인지 면밀한 기초 조사를 기반으로 인원 배정 문제를 보다 객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 흉포화에 따른 경찰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9 01 ()

/ 25

도내 대학 뼈 깎는 구조조정 안 하면 도태된다

도내 대학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학령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 입시 수시 모집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수시 모집은 학령인구가 본격적으로 급감한 뒤 시작되는 첫 수시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4년제 대학에서는 총 1만2,942명(정원 내)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원자치도 내 고3 수험생 수는 1만1,802명으로, 2022년 고3 수험생 1만2,651명보다 849명 줄었다. 정원 내 수시 모집 인원의 약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를 통해 발표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도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고3 수험생 수는 사상 최저치인 39만8,271명이다.

학원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재수생 비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입시제도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수험생들이 재도전을 선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교육부가 초고난이도 문항을 의미하는 '킬러 문제' 폐지 기조를 밝히면서 상위권 대학에도 전하려는 재수생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 절벽과 대학 운영상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대학

들이 만학도 유치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관동대는 2024학년도부터 휴먼서비스대학 안에 '해양치유레저학과'를 신설하면서 만학도를 추가 모집한다. 학령인구가 내년부터 급감한 데다 평생교육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개설돼 있던 언어재활학과, 치매전문재활학과, 산림치유학과, 중독재활상담학과, 통합치유학과 안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학과를 신설해 대학 이미지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대는 올해부터 미래농업융합학부를 '스마트팜농산업학과'로 개편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만학도를 모집한다. 이것만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학은 각고의 노력으로 상시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여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다. 상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정원 감축이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양적 구조조정은 임시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질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캠퍼스 울타리 안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제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기른 대학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江原日報

2023 09 01 ()
/ 25

道 출생아 수 7천명 붕괴 위기, 지역 존립 대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생아 수 7,000명 선마저 붕괴될 위기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27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7,357명)에 비해 79명이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다.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8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0.979명) 대비 0.011명 감소한 0.968명으로 나타났다.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7년째 감소세다. 출생아 수 감

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강원자치도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다.

출생아 수 감소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3명(3.7%) 낮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사상 최저다. 올해도 출생아 감소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올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0.7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에 가속도가 가파르게 붙고 있다.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역대 최저 7,278명 출생, 7년째 감소

합계출산율도 감소...지역 미래 장담 어려워

정부·지자체 인구 백년대계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혼인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도 줄고 있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 없이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늦게 아이를 낳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자녀 출산이 지연되면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이 때문에 인구 문제가 국가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 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출생률이 낮아지면 국가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맞물린 문제가 고령화다. 노인 인구

가 늘고 있는데 출산율이 받쳐주지 않으니 사회의 노령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되고 있는 강원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인구 절벽으로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활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 소멸 위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과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인구 변동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지역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